

우리 안의 타자, 동아시아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동아시아

역사와 현실 그리고 미래의 불가피한 사유공간, 갈등의 동아시아에서 상생의 동아시아로!

냉전시대가 저문 지도 한참 되었지만, 21세기 동아시아는 여전히 격변 속에 유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영토분쟁이 계속되는 한편으로, 동아시아의 근대 역사상을 둘러싸고 치열한 역사전쟁이 저류에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어깨를 견줄 만한 중국의 부상으로 G2시대가 도래하여 바야흐로 동아시아에 새로운 격변을 예고케 합니다. 동아시아의 한가운데 위치한 한반도의 미래는 이미 19세기에 목도했던 것처럼, 이들 이웃 국가들의 행보와 깊은 관련 속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아시아의 문제를 인문학의 주요한 주제로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인문학시민강좌총서〉를 간행하면서

동아시아



9 788993 908282

ISBN 978-89-93908-28-2

ISBN 978-89-93908-12-1(set) 값 11,000원

〈간행사〉	03
근대 동아시아, 대립과 반목의 역사 • 이희환	07
- 인천이 경험한 근대전쟁을 중심으로	
청제국의 유산과 중국의 21세기 • 이준갑	53
한국근현대사의 미국인들 • 안종철	89
- 제국주의 앞잡이인가? 한국의 친구인가?	
<hr/>	
전통문학을 통해 본 일본의 모습 • 임용택	119
- '와카', '하이쿠', '무카시바나시'의 세계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인천과 하이 폰 • 윤대영	157
한류를 통해서 본 동아시아와의 문화교류 • 김만수	197
동아시아 담론, 동아시아라는 사유공간 • 류준필	233
- 창비 그룹의 논의를 중심으로	